

초등 학생활동중심 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 수업설계 및 적용사례

이미자(광주교육대학교), 양승의, 유현석, 공정민, 김성중(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2015 교육과정 개정 6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해보고, 그 구체적 지도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자 초등학교 4명교사들이 G부설초등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중심수업에 공감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공동연구교사들과 5차례 협의회를 하였고 수업을 2회씩 참여관찰하며 실제 지도상 유의점을 종합하였다. 연구결과로 교사들이 수업을 하였던 수업설계와 지도사례 3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에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의 경험을 기초로 종합된 지도상 유의점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중심수업

I. 서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21C와 미래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교육부, 2015). 2015교육과정에 따르면 우리가 21C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6가지 미래핵심역량 중 하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능력이다.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능력일 것이다. 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차이점이나 공통관심을 소통하며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공동체에서 함께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신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등학교, 대학, 나아가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한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을 초·중학생들의 학교수업에서 신장해 주는 방안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주변에 다양한 인적자원들 및 학습정보들을 자유롭게 수집, 탐색,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수업방법으로 학생활동중심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5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창의융합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수업방법으로 ‘학생활동중심’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임수정, 2017;이종아, 2016; 김나영, 2013; 박양주, 2012).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사중심 설명식 수업 비중을 절대적으로 낮추고 더욱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가도록 수업방법에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과 2015 교육과정 개정변화에 따라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1) 학생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 및 지도사례를 예시로 제시하고 2) 이러한 수업적용 사례를 통해 학생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 지도방법 및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2015교육과정과 의사소통능력

가. 융합인재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년 12월 1일 발표되었다(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제 2015-81호). 2015교육과정의 가장 상위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고 제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궁극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4가지,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로 설정하였다. 2015교육과정의 다양한 각 교과와 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

등은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과정 최종목표와 추구하는 4가지 인간상을 종합적으로 달성하도록 계획되어있다. 2015 교육과정 적용 시점은 2017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연차적 적용하여 2020년 중3, 고3까지 전 학년에 적용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등과정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다. 1~2학년에 한글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수업시수가 매주 1시간(1~2학년 전체 64시간)이 늘고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안전한 생활'을 교과로 편성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새롭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한다. 실과 교과에서 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을 5~6학년에서 17시간 정도 포함하고 있다.

나. 6가지 미래 핵심역량

2015교육과정 최종 교육목표로 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이에 따라 제시된 4가지 구체적인 인간상을 교육을 통해 이루기 위해 학교 교육 전체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미래핵심역량도 6가지로 제시하였다. 6가지 미래 핵심역량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교육부, 2015). 이 6가지 핵심역량 중에 하나로 의사소통역량이 중요한 역량으로 명시되어있다.

- (1) 자기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2)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축적하고,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3)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4)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5)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6) 공동체 역량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 미래 핵심역량 개발 수업방법 및 의사소통능력

2015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6가지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업방법 측면에서도 변화

가 필요하다. 기존의 과목별로 분절된 교과 내용 공부보다는 교과통합 및 융합적으로 주제중심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 다양한 융·복합 사회 시스템에 맞게 과목의 경계나 교과서 내용을 넘어 주제에 따라 다양한 영역을 융합시키는 형태로 수업도 변화해야 한다.

수업을 이러한 교과간의 통합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융합하는 방법으로 운영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이다(이종아, 2016; 김미혜, 2017; 하정운 외, 2017; 김희연, 2014). 주제별 융합수업을 할 경우 학습을 위해 학생들은 소집단별로 또는 전체집단에서 서로 주제를 조정하고 문제해결과정 및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적 의사소통

가. 의사소통능력 의미

의사소통이란 언어, 기호, 동작 등을 통한 사람사이의 느낌, 생각, 혹은 경험을 주고 받는 과정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communicare*에서 나왔으며 두 개의 의미, 즉 *common* 과 *sharing*이라는 뜻이 합하여 진 단어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개념을 근거로 송명자(1998)는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이 대하는 대상과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송정미(2007)도 의사소통능력이란 상대방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나. 공감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상호 소통과정에 상대를 존중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공감적 듣기와 말하기(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방법이 초등학교 교수-학습 상황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 또는 기분을 말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기호나 상징을 통하여 서로 간에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의미

본 연구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은 비폭력대화 방법과 단계를 적용하여 특히, 교수-학습 상

황에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들이 인지적인 활동에서 서로 먼저 상대의 설명과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정의한다. '비폭력대화'는 Rosenberg의 NVC(Nonviolent Communication) 의사소통방식(Rosenberg, 2004)을 말한다. 이 비폭력대화는 공감적 대화법의 하나이며 대화 단계가 상당히 뚜렷하고 체계적이다. 특히, 비폭력대화는 '먼저 공감하면서 듣고 그 후에 말하기' 방식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상대와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박재현, 2018; 김가희, 2017). 따라서 교실에 학습과정에서 비폭력대화 방식으로 인지적 활동에도 '공감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지도할 때 학습내용 이해 및 공감을 기초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

비폭력대화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상황에서 자신이나 상대에게서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고, 부탁하고 싶어 하는가를 4 단계별로 잘 마음을 읽어내며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이야기 핵심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게 도와줌으로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 말하기는 4단계는 다음 (표 1)과 같다(Rosenberg, 2004).

〈표 1〉 공감적 의사소통 4단계(Rosenberg, 2004)

2. 느낌: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3. 욕구: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1. 관찰: 어떠한 일이 있는가?	4. 부탁: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1단계(사실관찰): 어떤 상황에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고 말하는 것이다. 일이 일어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개인적 판단이나 선입견을 전혀 개입하지 않고 말해주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로, 5가지를 말했구나. 노란색이 더 좋다고 했지? 등 사실적 관찰을 말한다.

2단계(느낌): 느낌은 관찰한 어떠한 행동을 보거나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어떠한 느낌을 느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속상하다, 기쁘다, 슬펐다. 외로웠다. 답답했다 등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단계이다.

3단계(욕구): 스스로가 느끼는 마음 느낌들이 결국 내면에 더 깊이 어떠한 욕구나 바램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어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결국은 무엇을 가장 깊이 바라고 원하는가를 잘 찾아내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주로 기대, 희망 등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알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4단계(부탁): 부탁은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일이나 말을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친절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예로, 지금 수업시간이라 개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좋겠다. 다 같이 책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줄 수 있겠니? 등이다.

다. 공감적 의사소통이 초등교육에 주는 시사점

학교교육현장에서 공감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따라서 공감적 의사소통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 대화방식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공감능력, 자기이해능력, 자아존중능력 등의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lake, 2002; 김미혜, 2017; 하정운 외, 2017; 김희연, 2014; 최은경, 2005; 구자경, 2005). 특히, 송정미(2007)의 연구는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적 의사소통 방식을 적용하여 초등학생들이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각각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송정미는 무엇보다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이 간단하고 명료하며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비교적 쉬운 방식이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 학생활동중심 수업

가. 학생활동중심 수업 의미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교육의 주체여야 할 학생들이 수업의 장면 속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가 수업의 중심이 되어 강의식으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며 배움으로부터 소외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수업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활동중심 수업이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다.

학생활동중심 수업이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고 지식의 일방적 전달에서 학생 활동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말한다. 학생의 활동은 단순히 학생이 수업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의미한다(이종석, 2016; 임수정, 2017; 김나영, 2013; 박양주, 2012). 본 연구에서는 학생활동중심 수업이란 '경청, 존중, 합의를 이루며 학생들이 학습활동(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정의한다.

나. 학생활동중심 수업에서 학생 참여방법

학생활동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3가지 영역과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종석, 2016)

(1) 행동적 참여

교육적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생 실제 행동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주의집중, 질문, 노력, 집중과 같은 구체적 행동들을 포함한다.

(2) 정서적 참여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학생이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습 활동 중에 느끼는 흥미, 즐거움, 행복감, 지루함, 두려움 등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나 교사, 교실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 유대 관계 등도 포함한다.

(3) 인지적 참여

수업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 기능, 기술을 배우고 이해하고 숙련하기 위한 학생의 생각과 의지적 노력을 의미한다. 인지적 참여는 학습에서 과제 해결 과정에서 융통성 및 실패에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 등도 포함하는 의미다.

다. 학생활동중심 수업과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학습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며 올바른 판단 능력을 길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중요하다.

경청, 존중, 합의의 기반 위에 학생의 학습활동(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이 중심이 되는 학생활동중심 수업은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며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활동중심 수업은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대상 학생들은 G광역시 G초등학교 1-2학년 4개 학급 학생들 (남여 100여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나이는 주로 8-9세이다. 대상 학생들 대다수의 의사소통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아직은 인성측면에서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발달단계 과정에 있으므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자의 감정을 공유하고 집중하여 경청하고 자기 차례를 지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공정민, 2017; 김성중, 2017; 유현석, 2017; 양승의 2016).

참여교사들에 따르면,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중 의사소통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는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나 발표 할 때 그의 심정과 발표 내용을 듣지 않고 무관심한 자세, 앞사람의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막상 본인 이야기만 하는 습관, 공감과 경청을 먼저 잘 하지 못하므로 쉽게 수업시간에 기분을 상하거나 다투는 경우 등이었다.

2. 연구방법

가) 문헌분석

연구자는 연구보고서,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등을 통하여 2015교육과정의 핵심내용과 수업에서의 의사소통능력신장에 대한 기본 이론과 초등수업과의 연계성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하였다. 또한 활동중심수업의 의미와 방법을 종합하고 연구 참여교사들이 실제 초등교실 수업 설계에 반영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이론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교사들과 협의회

본 연구자는 G광역시의 G초등학교 1-2학년 담임인 4명교사들과 공동연구자로서 연구를 위해 사전에 그리고 실제 연구과정에 5차례 협의회(2016. 5/2016. 9. 28/ 2016.11.16/ 2017.5.26/

2017. 11.08)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연구필요성, 교사 참여방법, 수업지도안 설계, 실제 수업 운영방법 등의 계획 안내와 진행단계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교사들이 운영하는 학생활동중심수업에서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도록 수업설계 및 실제 지도방법들을 의논하고 또한 수업 적용 후 과정에서 알게 된 지도방법 및 유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다) 수업적용 및 관찰

공동 연구자인 G초등학교 4명의 교사들은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 또한 실제로 수업에 적용을 하였다. 먼저 참여교사들이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우선 공감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이해와 방법 훈련을 하였다.

그 후 실제 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교사들이 2회 수업을 연구자에게 공개하였다. 연구자는 각 교사들의 공개수업에 (2016. 9. 28/ 2017년 11. 08)참여하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참관결과와 교사들과 협의회를 거쳐 실제 활동중심수업에서 주로 어떻게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촉진 시킬 수 있는지 지도방법 및 유의점 등을 수렴하고 종합하였다.

3. 연구기간 및 참여자 역할분담

연구기간은 2016년 5월~ 2017년 10월에 이루어졌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교수로서 연구의 필요성, 관련 이론적 배경, 그리고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계획을 교사들과 협의회를 통해 안내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1차년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공동 참여 4명 초등교사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 및 훈련하는 시기를 거치고 그 후 수업을 설계하고 직접 수업에서 적용해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공동참여 각 교사들 수업은 2회씩 연구자가 참여관찰하고 교사와 협의회를 통해 연구문제 결과들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2015교육과정 특성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 의사소통의 의미 및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학생활동중심 수업의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특히,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미래핵심역량 중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활동중심수업에서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지도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실제 지도 사례에서 효과적이었던 핵심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교사들과 초등 저학년 활동중심수업에서 실제로 공감적 대화 신장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여 그 설계에 따라 수업을 해보도록 하였다. 참여 교사들의 이러한 수업설계 및 적용사례 중 일부 실제사례를 연구결과로 제시한다. 제시한 수업설계 안에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 지도를 적용한 부분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들과의 협의회 및 수업 참관을 통해 공감적 대화를 수업상황 필요에 따라 적용하고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1. 활동중심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 지도 예시

가. 적용사례(1)

(출처: G초등학교 공동연구자 Y 선생님 수업사례)

(1) 수업 주제

가을맞이 패션쇼 하기

(2) 공감적 의사소통 위한 계획

공감적 대화를 통한 소통을 신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주제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문장을 만들고 서로 발표 및 경청하도록 계획하였다. 즉, 학습할 ‘가을’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직접 써보고(개인별 활동) ‘가을은 □이다’라는 문장 만들기(소집단 활동)를 하고 서로 발표하게 하므로 변화된 계절을 이해하는 과정에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서로 공감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소통하도록 계획하였다.

(3) 공감적 의사소통 지도 & 평가 방법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지도방법은 3가지로 하였다: 1)소집단별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이 들어간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였다. 2) 다양한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였다. 3) 다른 사람

의견을 먼저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지도하였다.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은 다음 2가지로 평가하였다: 1)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 대화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가? 2) 소집단 토의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가? 평가 시기는 학습활동을 하는 중 관찰하고 또한 평가방법은 학생들 활동 관찰 및 질문을 통해 하였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년 반/일시		1학년 (남13명, 여12명, 계25명)		
지도교사		Y		
배움 주제		가을맞이 패션쇼 하기		
핵심 성취 기준		-주변 환경의 변화 및 경험을 통해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하는 과정과 가을 날씨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을 날씨의 특징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미션 및 패션쇼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가을에 대한 사진과 입을 옷을 통해 가을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디딤 영상 내용 (거꾸로수업)		■ 가을 날씨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		
과정(분)		배움 활동	자료(□) 및 유의점(○)	핵심 역량
배움 두드리기	가을 낱말 쓰기 (5)	○ 가을하면 떠오르는 낱말 쓰기 - 낱말을 쓴 이유 발표하기 - 서로 궁금한 점 이야기하기 ㉮ ○ 가을에 떠오르는 사진 고르기 - 제시되는 사진을 보고 사진에 시선 맞추기 -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 말하기 - 사진을 들고 눈을 마주치며 낱말 말하기 - 포스트잇을 나무모형에 붙이기	□포스트 잇(과일모양), 나뭇잎 없는 가지만 있는 나무 모형 ○최소-최대 축진을 적용해 스스로 낱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가을 문장 만들기 (10)	○ '가을은 □ 이다.'문장 만들기 - 소집단 별로 '가을은 □ 이다.'문장 만들기 ○ '가을은 □이다.'문장 발표하기 - 가을에 대한 정의 내리기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의견 나누기 : 서로의 의견 경청하기, 친구들에게 친절한 말 사용하기)	□'가을은 □이다.'가 적힌 A4 용지, 사인펜 예 ○문장 발표때 먼저 바른 자세로 먼저 친구들의 말을 듣고(경청) 무슨말을 했는지 말고 자신의 말을 하도록 한다.	⑤
배움 펼치기		㉮ ○ '가을은 □ 이다.' - 여러 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기 - '가을은 □이다.'를 보고 □안에 선택한 색깔 붙이기 ○ '가을은 □이다.'를 따라서 말하기 - 색깔 이름을 말하기	□여러가지 색깔 스티커가 붙어있는 A4용지 ○스스로 읽어 볼 수 있도록 축진과 시간지연을 한다.	

		- 색깔 이름을 넣어 ‘가을은 □이다.’말하기 - 친구들의 의견을 바른 자세로 앉아 경청하기	예 ○바르게 친구들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패션쇼하기 (20)	○ 패션쇼 하기 - 각 소집단별 1명씩 나와 미션지 고르기 - 미션지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알맞은 의상 고르기 - 의상을 고른 후 소품 활용하기 - 소집단별로 미션 내용에 따른 포즈 취하고 사진 찍기 - 교실 주변 걷기(런웨이 걷기)	□미션에 따른 옷가지 및 소품 ○혼잡하지 않도록 옷가지 및 소품이 있는 장소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 ○ ○
		㉡ ○ 패션쇼 하기 - 자리에서 일어나 미션지를 스스로 고르기(개인 미션지) - 미션지에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 의상과 소품을 고르기 - 스스로 의상을 입어보기 - 미션지에 적힌 내용에 따른 포즈 취하고 사진찍기 - 런웨이 따라 걷기	□미션에 따른 옷가지 및 소품(한복 및 신발)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행동순서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축진을 제공한다.	
	배움 다지기	○ 패션쇼 마무리하기 - 모두 한 곳으로 모이기 - 가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이야기하기 - 모두 가을에게 한마디 전하기	예 ○단순히 가을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실감나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 ○
	가을에게 한마디 (5)	㉡ ○ 패션쇼 마무리하기 -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서 모이기 - 가을의 느낌을 짧은 말로 표현하기 - 친구들 말을 듣고 보면서 느낌 말하기	예 ○스스로 느낌표현이 어려울 경우 느낌사진을 제시하거나 사진을 보며 말하도록 지도한다.	

나. 적용사례(2)

(출처: G초등학교 공동연구자 K선생님 수업사례)

(1) 수업 주제

공공장소에서 지킬 일 알아보고 실천다짐하기

(2) 공감적 의사소통 위한 계획

보통 수업에서 대부분 공공도덕 교육은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이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본 수업에서는 어떻게 공공도덕을 가슴으로 느끼고 스스로 지키려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게 도와줄지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공공장소 지킴 일을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하도록 대화 기회를 주기 위해 라인 게임, 질문 만들기, 얼굴표정 그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공공도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지를 강화하도록 설계하였다.

(3) 공감적 의사소통 지도 방법 및 평가 계획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지도방법은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함께 활동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게임 및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서 자신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평가는 “공공장소에서 실천 약속을 정하는 과정에 친구들과 말을 듣고 공감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하는가? 를 평가하였다.

(4)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가을 1-2-1. 내 이웃 이야기(12/40)		
배움 주제		공공장소에서 지킴 일 알아보고 실천다짐하기		
성취 기준		[2바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배움 목표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을 말할 수 있다. ○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갖고 공감적 의사소통하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공공장소에서 지킴 일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핵심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인성 덕목	공감, 존중, 소통
배움 자료		동화책 「행복한 우리 가족」, 학습지 ‘얼굴표정이 빠져있는 그림 자료’		
과정 (분)	중심 내용	배움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배움 열기 (5')	동기 유발하기	○ 자신의 생활모습 되돌아보기 - '라인 게임'하기		예 라인 게임: 교실 바닥에 라인(선)을 긋고 선생님의 질문에 해당되면 라인에 가깝게 서는 게임이다. 라인 게임은 학생 스스로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내면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배움 주제 파악	〈‘라인 게임’ 질문〉 1. 우리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나요? (1명→3명→5명) 2. 이웃과 함께 식당에 가 본 경험이 있나요? 3. 식당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있나요? 4. 식당에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5. 우리 친구들이 식당에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 배움 주제 알아보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바른 행동 실천다짐하기	에 대답할 수 있게 해준다.
배움 펼치기 (30')	바른 행동 알아보 기	○ 배움 계획 세우기 · 배움주제를 보고, 오늘 활동할 배움 계획을 알아봅시다. - 바른 행동 알아보기(라파엘의 질문 대화) - 필요성 알아보기(얼굴표정 그리기) - 실천 약속 정하기(허니컴 보드-트리 맵) ○ 활동 1 < 바른 행동 알아보기 > · ‘행복한 우리 가족’ 동화책을 읽어주고 짝과 함께 라파엘의 질문대화하기 - 이야기를 읽고, 라파엘의 질문을 만든다. 〈라파엘의 질문 만들기〉 1단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 2단계. 생각하고 탐색하는 질문 3단계. 나 자신에게 질문 - 모둠 친구들과 서로 만든 질문을 묻고 답한다. ○ 활동 2 < 필요성 알아보기(얼굴표정 그리기) > · 얼굴 표정이 빠져있는 ‘행복한 우리 가족’ 동화책의 삽화에 얼굴 표정 그리기 - 공공장소에서 지킬 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편해 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얼굴표정을 그린다. - 공공장소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하는 까닭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활동 3 < 실천 약속 정하기(허니컴보드) > · 공공장소에서 내가 지킬 일 정하고 다짐하기 - 꼭 실천하고 싶은 일을 허니컴보드에 적고 친구들과 이야기	예 동화책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만들 때 책 속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행동을 비교해 보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게 하고 서로 만든 질문을 묻고 답할 때 상대의 질문을 먼저 듣고 듣는 학생이 그 질문을 다시 간단히 말하고 답하게 한다. 예 얼굴표정을 그릴 때 타인의 느낌을 짐작해보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말하게 한다.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한다.

		나눈다. - 앞으로의 실천 약속을 친구들 앞에서 다짐한다.	
배움정리 (5')	배움 쓰기 차시에 고	○ 배움 쓰기 및 성찰하기 배움을 통해 알게된 점이나 느낀 점 쓰기 - 배움 쓰기 및 성찰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차시 안내하기 다음 시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지킬 일을 역할놀이를 실천하기 안내	

다. 적용사례 (3)

(출처: G초등학교 공동연구자 Yu 선생님 수업 중 학생들 갈등 지도사례)

공감적 의사소통 위한 계획

학생활동중심 수업 경우 아직 자기중심적 특성이 많은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러한 다툼 대부분은 아이들이 서로의 표현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가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 4단계로 학생들이 자기감정 뿐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느끼고 그 후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계기를 주며 소통하면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해소된다. 아래는 그 실제 생활지도 사례 중 하나의 (예)이다.

공감적 대화 적용 (예)

단계	대화내용
관찰 (사실)	민수: “선생님, 선생님. 영철이랑 철수가 싸워요.” (철수랑 영철이가 썩썩거리고 있었다. 아이들 가까이 다가가서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공감적 대화 1단계: 사실관찰)을 이야기 해보라 했다.) 영철: “제가 친구들과 있는데 철수가 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져 화나서 저도 뭐라고 했는데 철수가 때려서 저도 때렸어요.” 철수: “아니 저는 그냥 있는데 영철이가 저한테 먼저 뭐라고 해서 뭐라고 한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치니까 화나서 때렸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예)(공감적 대화 1단계:사실관찰) 부터 확인이 필요했다.) 선생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자세히 알고 싶다. 우선 영철이는 누구랑 무슨 일 하고 있었니?” 영철이: “예. 제가 세윤이랑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 그럼 그 때 철수가 뭐라고 말한거야?” 영철이: “그림 못 그리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철수야. 너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철수: “네. 하지만 영철이가 먼저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비켜. 저리가라고’ 얘기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영철이도 그럼 그렇게 말한적이 있어?”

느낌 (기분)	영철이: “네.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장난치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런거였어요.” 선생님: “아. 그랬구나. 그런데 철수가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예) 공감적 의사소통 2단계: 느낌, 기분)?” 철수: “어.... 조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기분 안 좋을거 같아?” 영철이: “제가 조금 신경질 적으로 이야기 했으니까요?” 선생님: “철수는 어때?” 철수: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영철이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부탁	선생님: “그렇구나. 철수는 그때 영철이 기분이 나빴을거 같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철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예) 공감적 의사소통 3단계(욕구이해)?” 철수: “.....영철이에게 좀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철수가 영철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지금 지금 사과를 해보면 어떨겠어(예) 공감적 의사소통 4단계: 부탁)?” 철수: “영철아, 내가 아까 신경질 내며 비키라고 해서 미안해...” 영철이: “어.... 나도 너가 그림 못그린다고 말해서 미안.”

2. 공감적 의사소통 지도방법 및 유의점

공동연구자 4명교사들이 공감적 의사소통 신장을 위한 실제 수업을 해본 경험과 연구자가 수업을 참관하여 관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견된 주요 현상들과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을 지도할 때 주로 효과적이었던 실제 방법과 유의점을 종합하였다.

가. 공감적 의사소통 단계별 지도방법

(수업관찰 및 협의회 결과): 학습내용 & 학습태도 관련 의사소통 동시에 일어남

참여교사들의 수업에는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일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하거나 이 외에도 학습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나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수업이므로 수업내용 이외에 수업태도 및 수업질서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므로 교사가 두 가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교사 스스로 공감적 대화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소통 방식을 공감적으로 하도록 촉진하는 방법 다양한 예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 방안):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먼저 사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한 것을 느낌, 생각, 마음의 상태 등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촉진해 주어야한다. 참여교사들이 수업에서 ‘학습내용’ 이해 및 ‘수업태도’ 각각에 대해 어떻게 공감적 듣기, 말하기를 더 촉진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대화 경우와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을 비교하여 촉진방법 (예)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공감적 의사소통 단계별 적용 방법 예

단계		예1(학습내용)	예2(수업태도)	예3(수업태도)
		수업목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가지 이상 알 수 있다.	수업상황: 자주 수업시간에 다른 말하고 시끄럽게 한다.	수업상황: 조별활동을 할 때 딴 짓 하고 있다
1. 관찰 (사실)	일반	지시: 1가지 더 이야기해야지요.	지시: 철수야 조용해	지시: 민아야. 지금 조별활동 해라!
	공감적	->수정(관찰): 발표에서 2가지만 이야기 했어요.	->수정(관찰): 철수는 선생님 설명 듣기보다 친구와 지금도 이야기 하네	->수정(관찰): 지금 조별로 작품 만드는 시간인데 혼자 다른거 하고 있구나.
2. 느낌 - 느낌 (정서적) -판단평가 (인지적)	일반		학생 원망과 탓: 시끄러워 공부 못하겠어.	책임 추궁: 뭐하고 있는 거야?
	공감적	->수정(사실확인): 한 가지가 부족하지요?	->수정(느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속상해요	->수정(느낌):이러면 민아네 조는 늦어져서 친구들이 속상할 것 같아요.
3. 욕구 가치,바람(태도) 학습목표 (학습)	일반		권위적 이유: 선생님이 공부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했지	권위적 이유: 너 책임이야!
	공감적	->수정(목표,욕구): ---3가지 이상 알도록 발표하는 것이므로	-> 수정(욕구): 수업시간에는 철수와 우리 반 다 같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수정(욕구): 조별활동은 같이 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모두 좋으니까
4. 부탁	일반		권위적 명령: 나중에 이야기 해!	권위적 명령: 똑바로 앉아 지금 해!
	공감적	->수정(부탁): 한 가지 더 말해 주겠어요?	-> 수정(부탁): 공부시간이 아니라 이야기는 쉬는 시간에 하면 좋겠어요.	-> 수정(부탁): 지금 작품 만드는 것 같이하면 멋지게 작품이 될거 같은데 어때요?

위의 <표. 2>와 같이 교사가 공감적 대화 방식으로 촉진하는 경우 저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활동 및 수업태도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일부 고집을 부리거나 자발적 참여의지가 거의 없는 학생 경우에는 교사가 다시 한 번 같은 단계로 공감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이 외에 별도의 시간에 상담과 협조를 당부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나. 지도상의 유의점

(1) 4단계 중 융통성 있게 사용

(수업관찰 및 협의회 결과): 공동 연구자들의 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 4단계를 항상 모두 적용하기보다는 학습내용 및 학습태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 발달단계로 볼 때 학생들이 4단계를 전체적으로 인지하며 듣고 말하기는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적용 방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필요한 단계만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 경우에 적어도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교사와 학생들이 잘 관찰하고 표현하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단계 까지 적용: 1단계(관찰)
- 2단계 까지 적용: 1단계(관찰), 2단계(느낌)
- 3단계 까지 적용: 1단계(관찰), 2단계(느낌), 3단계(욕구, 희망)
- 4단계 전체 적용: 1단계(관찰), 2단계(느낌), 3단계(욕구, 희망), 4단계(부탁)

(2) 의사소통 대상 확대 촉진

(수업관찰 및 협의회 결과): 저학년 학생들과의 활동중심 수업 상황은 주로 교사-학생간의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교사와 학생 전체의 의사소통 비중이 높았고 교사와 개별 학생의 의사소통도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교사와 개별 소수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할 경우는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개인행동들을 많이 하였다.

(적용 방안): 기본적으로 저학년 수업이므로 교사-학생중심 의사소통 비중이 높을지라도 학생들 사이의 ‘학생 : 학생’ 의사소통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적 듣기, 말하기 방법을 권장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 사이의 충분한 공감적 소통 기회가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서로 짝과 또는 작은 소그룹 활동을 늘려주면 공감적 의사소통 상호 경험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 그 밖의 유의사항

위에 제시한 내용 외에도 공동참여교사들이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들도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가) 경어 사용하기: 교사와 학생 대화에 가급적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나) 4가지 언어 생활화하기: “고마워”, “힘내”, “괜찮아”, “미안해” 이러한 말들을 생활화하도록 하면서 우선적인 공감적인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다) 학생들을 미리 판단이나 비교하지 않기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말할 때 판단 받는 학생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방어와 저항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은 판단의 한 형태이므로 학생들의 마음 문을 닫게 하므로 공감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5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6가지 핵심역량 중에 의사소통능력이 어떻게 강조 되어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감적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후 초등 저학년들의 학생활동중심수업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해 주기 위해 서로 상호 소통할 때 공감적 듣기와 말하기를 교수-학습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실제 교사들과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 실제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촉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수업을 하였던 수업설계안을 예들로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설계 예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수업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공감적인 대화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적용(예)도 제시하였다. <표. 2>.

또한 수업관찰 및 협의회를 통해 공감적 의사소통을 하는 수업현상들(학습내용 & 학습태도 관련 의사소통 동시에 발생, 공감적 의사소통 4단계 융통적 사용, 의사소통 대상 확대 촉진)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현상에 대한 공감적 의사소통 적용방안들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한 수업설계들과 지도유의점들을 종합하여 공동참여교사들(양승의 2016, 유현석 2017, 공정민, 2017; 김성중, 2017))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4가지 공감적 대화 단계(관찰→ 느낌 → 욕구 → 부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고르게 지도해야하나 무엇보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이것을 기초로 자신의 생각을 연결하여 말하도록 촉진 및 지도를 해주는 것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제 수업 관찰과 교사들 적용경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므로 공감적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4단계 활용이 초등 저학년에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지도 가능한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수업에서 인지적인 공감활동 뿐 아니라 수업태도 및 갈등 조정 등에도 교사와 학생들이 이렇게 공감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학생들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공감적 대화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능력 측면을 특히 초등 저학년들에게 적용하여 공감적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수업설계와 수업적용 예를 시범적 사례로 제시하는 기초적인 연구였다. 따라서 다른 초등 교사들이 본 연구 결과로 제시한 사례들과 지도 유의점들을 쉽게 본인의 교실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황과 여건이 다른 교수-학습상황에는 다르게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활동중심수업에서 이렇게 교사와 학생들이 공감적 듣기,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기본 소통방식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실제 학습경험이 더욱 21C 학습방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실수업에서 교사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접근 방식 개선이 학생들의 학습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들(정선교 2011; 송호연, 2009; 진천초등학교 2016)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 본 연구는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 적용 사례연구이므로 관련 주제에 대한 다음 단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수업에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해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단계를 일반화하고 모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적 의사소통을 지도하기 위한 일반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18. 7. 26. ※ 논문 수정일: 2018. 8. 24. ※ 게재 확정일 : 2018. 8. 30.

참고문헌

- Blake, S. M (2002). A step toward violence prevention: "Non- Violent Communication" as part of a college curriculum. Master of Art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 Marshall B. Rosenberg (2004). Non Violent Communication. 케서린 한(역). 서울: 바오출판사.
- 공정민 (2017).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공동연구 보고서. 광주교육대학교
-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제 2015-81호.
- 구자경 (2006).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와 치료적 요인 지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 연구, 7(1) 11-26.
- 김가희 (2017). 공감적 대화를 활용한 소셜 교육 방법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 석사논문
- 김나영 (2013). 활동중심 수업의 의의와 한계 : 초등 과학과 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무겸 (2004). 초등학교아동의 권리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2017).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과 문학 읽기 -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화 읽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2017(1). p. 167-187.
- 김성중 (2017).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공동연구 보고서. 광주교육대학교
- 김희연 (2014). T-차트 협동 학습을 통한 공감적 대화 지도 방안. 학위석사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박양주 (2012). 활동중심 수업설계 원리 및 전략의 탐색. 열린교육연구, 20(1). 박중분, 이미숙, 이길재 (2003). 자연선택개념의 이해를 위한 활동중심수업의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5), p. 505-516.
- 박재현 (2018).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의 교육 내용 체계. 작문연구, 37권0호. p. 7-34
- 송명자 (199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정미 (2007). 비폭력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송호연 (2009).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도움행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의 (2016).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공동연구 보고서. 광주교육대학교
- 유현석 (2017).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공동연구 보고서. 광주교육대학교
- 이종아. (2016) 중학교 교사들의 '학생 참여형 수업' 이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p. 11~15.
- 임금선 (2008). 공감적 화법 능력 신장을 위한 비언어적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중·고등학교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수정 (2017). 행복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학생활동중심 수업방법'적용 연구. 미래교육연구, 7(2). p.103-125.
- 정선교 (2011). 초등학교이 인식하는 교사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천초등학교 (2016). 거꾸로수업 연구학교 보고서
- 최상미 (2003).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문호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경 (2005).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의 의사소통 효과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윤, 차지철, 한정현, 최원남, 조영옥 (2017). 예비 유아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p. 145-168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Lesson Plans & Application for 'Sympathetic Communication' in Elementary School Activity-oriented Class

Mijar Lee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yungyi Yang, Hyunseak Yu, Joungmin Gong, Soungjoog Kim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lesson plans and applying methods to enhance sympathetic communication skills, especially in activity-oriented class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age needs where communication skills are emphasized in the revision of 2015 curriculum. To this end, the researcher and the four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re co-researchers, designed instructions to apply sympathetic communication methods and applied the lessons with 1st & 2nd grade 100 students at G. elementary school.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each teachers classes twice and also put the results together after 5 times meetings with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d the two actual lesson designs and one conflict resolution cases among students by applying sympathetic communication steps. It also presented special precautions that should be taken together with teachers' experiences in applying sympathetic communication in class.

Key Words : Sympathetic Communication, Activity-Driven Classes